

이룸소식 2015 05호

안녕하세요. 4월 이룸소식을 전합니다.

4월 증시 상승 분위기 지속 중

4월말 주식시장은 지난 4년만의 고점 부근인 종합지수 2,127pt선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월간 상승률은 4.2%로 올 연초 이후의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외국인이 4.6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증시의 견조한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국인들에 의한 순매도는 지속되고 있는데, 펀드 환매가 발생하면서 투신권에서 약 3조원어치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졌고 기타 개인과 국내기관들의 순매도도 가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월말에 이르러서는 외국인 매수강도가 약화되면서 종합지수가 5일간 조정받으며 마감되었습니다.

펀드 환매 지속되는 상황

연초 이후 상승폭이 컸고 종합지수가 2011년 4월 25일 기록한 사상최고치에 근접하면서 펀드의 환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금리가 1%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시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주식시장 주변에 머물고 있어 4월 중 주식예탁금이 약 3조 40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대의 낮은 시중금리의 영향으로 4월 중에만 약 14조원의 자금이 MMF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은 증시가 하락하여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경우 다시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하락위험은 제한적이며 조정 후에는 다시 추가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월 운용경과

지난 4월 이룸의 운용성과는 대체로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 상당수 종목들의 주가가 다소 과도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판단되어 밸류 부담없이 살만한 종목이 마땅하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소 종목들의 상승도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있어 적극적인 편입은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관망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종목 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증시 및 운용전망

5월 증시는 월초에는 일단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개별종목의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일 경우 하락폭이 큰 종목 중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하여 매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에도 주식시장의 상승과 이룸의 종목발굴이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월말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30.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